

瑞山 普願寺 鐵造如來坐像 考察

강건우(姜建佑)

I. 머리말

II. 조선충독부박물관과 보원사 철조여래좌상

III.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조성시기와 조성배경

IV.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原 봉안처

V. 맺음말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재고」, 『한국고대사탐구』 27(2017);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 『미술자료』 96(20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연구—입수 경위와 像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6(2020)

普願寺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북쪽에 위치한 사찰로, 경내에는 나말여초에 조성된 문화재가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충청남도의 고적 조사를 계획했고, 1916년(대정 5) 보원사지에 가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小屋에 안치된 철조여래좌상(무릎 너비 7척, 두께 5척 5촌)을 확인했고, 이듬해에 경복궁으로 해당 철조여래좌상을 이운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보원사지에 2m가 넘는 대형 철조여래좌상 1구만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철조여래좌상은 法印國師 坦文(900~975)이 955년에 조성하였을 것이다. 탄문은 광주 고봉의 유력가문 출신으로 태조의 보살핌 속에 화엄종의 중심인물로 성장했고, 연이어 惠宗(재위기간 943~945)과 定宗(재위 945~949)대에도 왕실의 불교행사를 주관했다. 이후 탄문은 大穆王后 皇甫氏(?~?)의 후원을 받은 均如(923~973)의 등장으로 개경에서 떨어진 보원사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충주 유씨의 후원을 받아 지지 세력의 결속을 다지고 한편으로는 光宗(재위 949~975)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대형의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탄문의 비문에 나오는 ‘鑄金像之三尊’도 보원사에서 철조여래좌상이 주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철조여래좌상의 原 봉안처는 보원사지 내 ‘건물지3’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현재의 금당지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물지로 드러났기 때문에, 철조여래좌상은 조성 당시 다른 장소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건물지3은 다른 건물지에 비해 고려시대 기와와 자기의 출토 빈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정방형에 가까운 불단 유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철조여래좌상은 조성 당시 고려시대 전각인 건물지3에 봉안되었다가 조선시대 중창불사를 통해 지금의 금당지로 이운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보원사, 철조여래좌상,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탄문, 보원사지 발굴조사

瑞山 普願寺 鐵造如來坐像 考察

강건우(姜建佑)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普願寺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伽耶山 북쪽에 있었던 사찰이다.¹ 삼국시대 창건 이래 대표적인 華嚴宗 사찰로 번창했지만, 18세기 무렵 사세가 완전히 기울었고, 지금은 옛터에 廢寺址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石槽를 비롯하여 幢竿支柱, 五層石塔, 法印國師塔 등 나말여초에 조성된 문화재가 경내에 남아있어 사찰의 옛 榮華를 어렵잖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다. 현재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鐵造如來坐像 역시 보원사의 번성했던 옛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는 문화재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에 전시된 보원사 철조여래좌상(본관5191)은 높이가 259cm에 이르고, 偏袒右肩의 착의에 얇은 대의를 몸에 밀착하였고,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린 吉祥坐를 취하고 있다(도 1). 머리가 커서 어깨는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고, 장방형의 얼굴에 개성적인 이목구비 표현이 특징이다. 이러한 개성적인 얼굴은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철조여래좌상과 상당한 친연성을 보여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안타깝게도 불상의 양손은 모두 결실되었는데, 연구자들은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존명을 降魔觸地印을 결한 釋迦牟尼佛로 추정하고 있다.

항마촉지인을 결한 철조여래좌상은 사찰의 중심 殿閣, 즉 金堂의 본존으로 봉안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2m가 넘는 대형의 철조여래좌상임을 고려한다면, 像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1980~90년대 몇 편의 불교미술사 논고 외에는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에 대

1 본고에서 일제강점기 자료와 발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한 경우는 '보원사지'로,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보원사'로 표기했다.



도 1. 보원사 철조여래좌상, 높이 259cm, 국립중앙박물관 (본관5191)

한 연구가 드물고, 이마지도 단독 연구보다는 통사적인 관점에서 이뤄진 시대별 철조여래좌상 연구가 다수다.²

그런데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공개 사업과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조사공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단편적인 기록에서 나아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입수 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공개된 보원사 관련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을 바탕으로 철조여래좌상이 입수된 경과를 면밀하게 밝히고, 일제강점기 보원사 경내에 불상이 어떤 방식으로 안치되었는지 확인하겠다. 다음으로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조성시기와 조성배경을 검토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고려 광종 즉위년(949)에 탄문이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보았다.³

그런데 탄문의 행적이 기록된 비문에는 949년경 당시 탄문이 보원사에 주석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말여초 비문에 전하는 고승들의 행적은 함축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문의 전체 문맥과 여러 관련 문헌 등을 종합하여 승려의 주석처를 추정해야 한다. 광종대 정치적 상황과 탄문의 활동을 고려하여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조성시기와 조성배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서산 보원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조여래좌상의 조성 당시 보원사 내 봉안처를 추정하겠다. 현재의 금당지가 조선시대 건립된 곳이라는 점에서 철조여래좌상은 조성 당시 다른 장소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고가 고려시대 철조여래좌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姜友邦,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미술자료』 41(1988), pp.1-31; 이인영, 「고려시대 철불상의 고찰」, 『미술사학보』 2(1989), pp.56-59, pp.71-73; 최성은, 『철불』(서울: 대원사, 1996), pp.83-85; 沈熙京, 「瑞山 普願寺址 佛教彫刻의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pp.1-101; 崔仁善, 「韓國 鐵佛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pp.151-152, pp.187-189; 김혜란, 「普願寺鐵佛의 조상」, 『史林』 14(2000), pp.3-63;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서울: 일조각, 2013), pp.109-112.

3 거의 모든 연구에서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조성연대를 949년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姜友邦, 앞의 논문(1988), pp.26-29; 이인영, 앞의 논문(1989), p.73; 최성은, 앞의 책(1996), p.83; 沈熙京, 앞의 논문(1997), pp.47-50; 김혜란, 앞의 논문(2000), pp.22-23; 정은우, 「탄문과 서산 보원사」,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대전: 지그래픽, 2015), pp.71-73; 민환, 「고려전기 남한강 문화권의 형성과 불상조성」, 『미술사학연구』 285(2015), p.62; 정병삼, 「고려초 탄문의 불교계 활동과 보원사」, 『史學研究』 132(2018), pp.335-336; 권보경, 「고려 전기 원주지역 철불의 조성」, 『美術史學』 39(2020), pp.113-114 참조.

II. 조선총독부박물관과 보원사 철조여래좌상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15년 ‘始政 5주년 기념 朝鮮物産共進會’를 위해 세워진 경복궁 내 미술관 건물을 활용하여 같은 해 12월에 개관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일제의 지배 정책에 따라 1915년 총무국 총무과를 시작으로 1944년 학무국 교무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다. 이 기간 동안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한 공문서는 기부, 진열, 구입, 발견, 지정, 고적조사 등 모두 8개 분야의 문서철로 나뉜다. 그 가운데 고적조사 문서철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의 계획과 실행 및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⁴ 이 고적조사 문서철은 기본적으로 ‘고적조사 위원회, 복명서, 조사보고, 고적·유물 목록, 사진·도면’으로 세분화된다.⁵ 즉 1916년 7월 4일 府令 제52호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공포되고 설치된 고적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비롯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고적을 조사·등록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의 일체이다.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서산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기록도 고적조사 문서철에서 확인된다.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은 고적조사 문서철 중 ‘大正 5~6년도 복명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복명서에 편철된 ‘서산 철불 조사 보고’를 보면 보원사지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서산 철불 조사 보고는 표지, 메모, 복명서(대정 5), 조사 보고, 붙임 문서(도면, 평면도, 사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명서(대정 5)에는 이번 1916년 6월 10일 출장의 목적을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보현당 소재 철불 운반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⁶ 바로 뒷장의 조사 보고에도 출장의 목적이 ‘철조여래좌상을 본부 박물관 구내로 운반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면서, 일제강점기 서산 보원사지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서산 운산면 보현동으로(원래 해미군 부산면 강당리, 별지 (ㄱ) 사진은 동의 전경임)
... 불체의 부근은 옛날의 사원이었던 형적이 있다. 구역이 광대하고 곳곳에 돌계단과 돌난간 등의 용석으로 보이는 것이 산란하여 일견 대찰의 유희임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⁷

위의 기록을 통해 철조여래좌상 근처에 사원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규모가 광대하여 폐사되기 전에 제법 큰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고자는 별지 (ㄱ) 사진을 본문

4 이현일·이명희,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 『미술자료』 85(2014), p.98.

5 ‘고적조사위원’ 문서는 1916년부터 1932년까지 열린 고적조사위원회에 관한 것이며, ‘복명서’는 고적 조사 담당자들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제출한 출장 결과보고서이다. ‘조사보고’ 문서는 고적의 위치, 유래, 상태, 역사적 가치 등을 조사한 것이며, ‘고적·유물’ 목록에는 고적과 유물을 조사하여 등록한 〈고적 및 유물 대장〉과 식산국 산림과에서 제작한 〈고적 대장〉 등이 있다. ‘사진·도면’은 고적조사 관련 유적, 유물의 사진과 실측도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6 이하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해석은 국립중앙박물관 이기현 학예연구사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7 서산 철불 조사 보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누리집(F001-003-004-003~004) 참조.

에 첨부하여 1916년 보원사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즉 별지 (ㄱ) 사진은 출장 당시 보원사의 전경을 촬영한 사진인 것이다.

그런데 확인 결과 별지 (ㄱ) 사진은 출장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1920년에 촬영한 사진으로 밝혀졌다. 1920년에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도 2) 왼쪽에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강당사 전경(이하 강당사 전경)’이, 오른쪽 하단에는 ‘대정 9년’이 적혀있는데, 바로 이 사진이 무려 4년 전에 작성된 1916년 조사 보고의 별지에 제목과 날짜가 생략된 채 첨부되었던 것이다. 보고자는 출장 당시의 보원사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916년 혹은 그 이전에 촬영한) (ㄱ) 사진을 동의 전경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 동의 전경 사진을 1920년에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으로 교체했는지 이해가 쉽지 않다. 1916년에 촬영한 사진이라면 철조여래좌상의 모습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1920년에 촬영한 사진이라 이때는 철조여래좌상이 옮겨진 이후이다. 이는 별지 (ㄱ) 사진의 오층석탑 뒤에 위치한 흰색 기둥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흥미롭게도 이 기둥은 ‘普願寺址 鐵造如來坐像 遺址 石標’로 확인된다(도 3). 석표를 확대해 보면, 세로 방향으로 ‘普願寺釋迦如來口像石座, 像八大正七年三月博口館ニ 移ス’이라고 새겨졌고,⁸ 그 옆의 나무 팻말에는 ‘普願寺址…大正九年三月 朝鮮總督府’로 적혀있어, 이 유리건판 사진 역시 1920년 이후에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⁹



도 2. 보원사지 전경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건판005852)



도 3.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 터 석표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건판005844)

8 현재 이 석표는 보원사지 출토 석조 부재와 함께 야외 한곳에 놓여있다. 박락이 진행되어 글자를 판독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석표의 존재 및 위치는 국립청주박물관 황지현 연구관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9 이순우는 ‘금석물을 박물관에 옮긴 경상북도 김천군 남면 갈항사탑지와 기타 4개소에 이전의 취지를 새긴 석표를 세웠다’는 『조선회보(대정 9년 1월호)』의 ‘대정 8년에 있어서 조선’ 기사에 근거하여 1919년에 보원사 석표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나』(서울: 하늘재, 2002), p.141; 朝鮮總督府 編, 『朝鮮彙報』(京城: 朝鮮總督府, 1920), p.69.

조선총독부에서 1919년에 발간한 『朝鮮彙報』와 1920년 발간한 『博物館陳列品圖鑑』 2에도 1918년(대정 7)에 보원사에서 철조여래좌상을 이운했다고 전한다.¹⁰ 후술하겠지만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에서는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입수연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보원사 석표만을 두고 살펴볼 때, 보원사에 세워졌던 철조여래좌상의 석표는 하나이고,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운해 온 불상도 단 한 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古蹟及遺物臺帳’에도 나온다. 이 공문서를 보면 1917년(대정 6) 3월 15일에 강당사지 철불상이 제51호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¹¹ 강당사는 조선시대 보원사의 또 다른 사찰명이고, 이 불상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로 기록되어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이 분명하다. 또한 1916~1917년 식산군 산림과에서 생성한 ‘충청남도 고적대장’ 서산군 조에도 강당사지(일명 보원사)에 철불상 1구, 법인국사보승탑 1구, 당간지주 1구 등이 있다고 전한다. 이를 통해 1916년(대정 5) 6월의 서산 철불 조사 보고 후, 1917년 3월에 강당사지 철조여래좌상(제51호)을 비롯하여 법인국사 보승탑(제49호), 법인국사 보승탑비(제50호), 오층석탑(52호) 등이 고적유물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18년(대정 7)에 작성된 ‘진열물품 청구서’의 내용이 주목된다. 당시 진열품이라는 개념은 상설전시실에 전시 중인 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장부에 등록한 유물 전체를 뜻한다.¹² 이 진열물품 청구서에는 ‘불상 및 비석 4개’를 拂出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불상 및 비석 4개’의 목록을 국립중앙박물관 본관품 유물번호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조선휘보(대정 8년 1월호)』, ‘대정 7년에 있어서 조선’ 기사에 따르면 ‘금석유물의 수집은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면에 있던 백월서운탑비,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에 있던 석가철상 및 원래 경기도 개성군 광덕면에 있던 경천사탑의 취기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朝鮮總督府 編, 『朝鮮彙報』(京城: 朝鮮總督府, 1919), p.62. 또한 『박물관진열품도감』 2에도 ‘대정 7년(1918) 3월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에서 이송된 불상’으로 소개되었다. 朝鮮總督府 編, 『博物館陳列品圖鑑』 2(京城: 朝鮮總督府, 1920).

11 고적조사 문서철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고적유물은 총무국 조사-추가 보고-위원회 결의-대장 등록의 단계를 거친다. 1917년 3월 15일에 136건을 등록하였고, 이후 7월 7일에 31건, 8월 20일에 26건이 추가되었다. 이현일·이명희, 앞의 논문(2014), pp.100-101.

12 陳列品이란 개념은 조선총독부박물관 이래로 사용되었으며, 등록하지 않은 참고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오늘날 널리 통용되는 所藏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관보』를 기준으로 할 때, 『관보』 제8호가 간행된 1949년 12월부터이다. 『관보』 제8호에 ‘소장품의 검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때의 소장품 개념은 미정리 상태의 참고품을 포함하고 있다. 장상훈, 『해방공간 국립박물관의 소장품과 그 관리』, 『박물관신문』 563(2018), p.19.

표 1.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리번호와 국립중앙박물관 본관품 유물번호 비교>

조선총독부 박물관 번호	유물명	적요	국립중앙박물관 본관품 유물번호	유물명	출토지
5189	철불	경기 개성 영남면에서 취기	5189	망실	
5190	석불	경기 개성 영남면에서 취기	5190	석불	경기 개성군 영남면
5191	철불	충남 서산군 운산면에서 취기	5191(2-1)	철조여래좌상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진비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취기	5191(2-2)	여진비	함경북도 경원군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진열품 청구서 목록과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 본관품 유물번호가 동일하다.¹³ 본관5189 문화재는 6.25 때 망실되었는데, 해당 문화재는 현재 개성 고려박물관에 소장된 서운사(전 적조사지) 철조여래좌상으로 추정된다. 본관5191(2-1)은 출토지가 충남 서산군 운산면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철조여래좌상(본관5191)이 보원사 일대에서 옮겨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열품물 청구서에는 ‘불상 및 비석 4개(5189~5191)’에 이어 ‘杯의 蓋 외 50점(5192~5243)’이 기록되었다. 모두 51점으로 ‘불상 및 비석 4개’의 마지막 번호인 5191에 이어 5192부터 연번이 시작된다. ‘배의 개 외 50점(5192~5243)’ 목록은 모두 1917년(대정 6) 고적조사 수집품 목록으로 적혀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입수된 순서대로 연번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관5191 철조여래좌상도 앞서 살펴본 ‘배의 개 외 50점’처럼 고적조사 및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에 입수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¹⁴

이러한 추정은 1920년(대정 9) 3월에 발행한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를 통해 설득력을 가진다. 이 책의 ‘大正六年度古蹟調査事務概要’의 ‘遺物ノ取寄’에는 1917년(대정 6)에 취기를 완료한 문화재로 ‘開城寂照寺址鐵造佛像, 開城寂照寺址石造菩薩像, 瑞山普願寺址鐵造釋迦如來像’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는데,¹⁵ 앞서 살펴본 표1의 목록과 순서가 같다. 다시 말해 본관5189는 서운사 철조여래좌상 1구, 본관5190은 서운사 석조보살상 1구, 본관5191은 서산 보원사 철조석가여래좌상 1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보원사에서 철조여래좌상은 어떤 모습으로 봉안되어 있었을까? 이와 관련 하여 1916년(대정 5)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어 흥미롭다.

불체는 전포 가운데에 있다. 별지 사진(口)과 같이 小屋에 안치되어 있으며 문은 쇠약으로 잠궤 부락민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불체는 좌상으로 정교 치밀하여 보기 드문 일품이다.¹⁶

13 국립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등록한 진열품을 ‘8.15 前 소장품’으로 구분하고, 이후 ‘본관’이라는 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장상훈, 앞의 글(2018), p.19;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소장품 정리상황 통계표』(1959) 참조.

14 1918년(대정 7) 진열품물 청구서의 ‘종로[焜爐] 외 88점(5244~5332)’도 1917년(대정 6년) 전기 고적조사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15 朝鮮總督府,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京城: 朝鮮總督府, 1920), p.17.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누리집(문서번호: F001-003-004-004) 참조.

위의 내용을 보면 불상은 발 가운데 세워진 소옥에 있다고 한다. 이는 불상이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임시처에 안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철조여래좌상이 소옥에 안치된 사례는 慶北 聞慶 鳳巖寺 철조여래좌상에서도 확인된다. 9세기 중후반 작으로 추정되는 봉암사 철조여래좌상은 현재는 전하지 않지만, 다행히 1935년에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이 남아있어 그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도 4).¹⁷ 마치 석굴암 본존불처럼 당당한 신체의 봉암사 철조여래좌상은 假屋에 안치되어 꼭 들어찬 느낌을 준다.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이 안치된 소옥도 봉암사 철조여래좌상의 가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 터 석표’ 유리건판 사진과 ‘강당사 전경’ 유리건판 사진을 비교해보면, 석표 뒤쪽의 나무와 초가집 등의 위치를 통해 현재의 보원사지 금당지 부근에 소옥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도 2~3). 즉 철조여래좌상은 소옥이 설치되기 전부터 금당에 주존불로서 봉안되었던 것이다. 이후 사세가 기울어 사찰이 폐사되면서 옥외에 방치되었던 철조여래좌상을 안치하기 위해 소옥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소옥의 위치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 첨부된 見取圖이다. 불체 우측면과 종단면이 그려진 견취도를 보면 철조여래좌상 뒤로 臺石과 支石이 보인다(도 5). 대석은 3단이며, 대석과 지석으로 철조여래좌상을 지탱하고 있다.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는 대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도 4. 경북 문경 봉암사 철조여래좌상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건판022123)



도 5. 서산 철불 조사 보고_견취도, 국립중앙박물관

17 鳳巖寺는 智證大師 道憲(824~882)에 의해 881년 개창된 曦陽山門의 본산이다. 924년(경애왕 1) 건립된 비문에 기록된 두 구위 철불상 중 한 구로 여겨진다. 이 철불은 (6.25 전쟁 후) 이전부터 假屋 안에서 전래된 破像이 다시 破損되어 그 殘片이 埋沒되었다고 전한다. 그 鐵佛의 귀 부분이 東國大博物館에 移管되었다. 黃壽永,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美術史學研究』 154·155(1982), pp.22~23.

중량 약 5백 관문 내외로 추정되는 대석은 4층으로 되어 있다. 상부 대석은 파괴되어 현존하지 않고, 아래 대석도 2~3개로 이루어져 있고, 혹은 일부분이 파괴된 곳이 있다. 그 전부의 중량은 어림잡아 1천 4~5백 관문 내외로 추정된다. 대석 중 상부의 부분 하나는 연화 조각의 형적이 있는데,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기고 또 조체도 판명할 수 없다.¹⁸

위의 기록을 보면 대석은 파손되어 현재 2~3개만이 남아있고, 대석 상부에 연화 조각이 새겨졌다고 한다. 이는 仰蓮을 새긴 上臺石으로 추정된다.¹⁹ 1960년대까지 보원사 금당지와 오층석탑 부근에 石階隅石片, 基壇石片, 礎石, 佛座臺地臺石, 佛座臺仰蓮石 등이 남아있었다고 한다.²⁰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 티 석표’ 유리건판 사진에는 석표와 목책 뒤로 넘어진 지석과 대석이 확인된다. 이 둘들은 견취도에 그려진 지석과 대석으로 보이며, 목책으로 둘러싼 공간은 철조여래좌상이 안치되었던 곳이자 소옥이 세워진 현재의 금당지다.

소옥에 안치되었던 불상의 크기는 佛體安置堂平面(이하 평면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도 6). 평면도를 보면 불상의 무릎너비는 7척, 두께는 5척 5촌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를 환산하면 불상의 무릎너비는 약 212cm, 두께는 약 167cm이다. 이는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크기와도 거의 일치한다. 즉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은 무릎너비 214cm, 두께 144cm로 평면도에 기록된 불상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무릎너비는 약 2cm, 두께는 약 23cm 정도 차이를 보인다. 측량자에 따른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운한 보원사 불상은 높이 259cm, 무릎너비 214cm, 두께 144cm의 대형 철조여래좌상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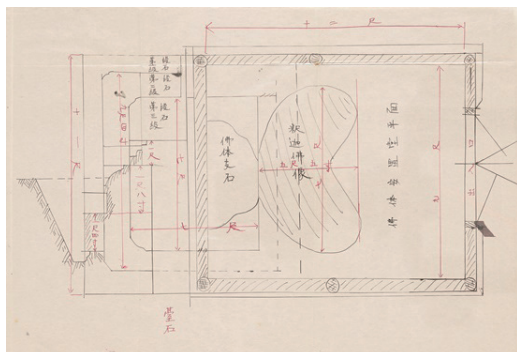
한편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는 높이가 259cm에 이르는 대형 철조여래좌상을 餘美와 서산을 경유하여 舊島港까지 가서 해로를 통해 운송할 것을 별지의 약도와 함께 보고했다(도 7). 대형 철조여래좌상을 천안으로 육송하여 철로를 이용할 경우 운반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경비가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청부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실제 철조여래좌상의 운송은 철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1928년에 간행된 『朝鮮佛教』 제45호에 비교적 자세히 전한다.

지금의 서산군 해미읍내 가야산에서 大佛鑄像을 경성으로 운반한 것은 분명히 대정 6년경(1917)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김천 군수 다시로(田代)가 그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인부 사오십 명, 소달구지 대여섯 대, 그리고 지방관청으로 하여금 도로와 교량을 개수하게 하여 천안역까지 20리를 운반하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누리집(문서번호: F001-003-004-004) 참조.

19 佛座臺의 破片으로 推定되는 仰蓮上臺石이 있으나 이는 四角層級받침이 造出되고 돌레로 寶相華 仰蓮을 彫刻하였다. 이 二個의 殘存石片을 通하여 推測컨대 須彌座式蓮花座臺로 推定된다. 李殷昌, 「瑞山 普願寺址의 調査」, 『美術史學研究』 69(1966), p.187.

20 李殷昌, 앞의 논문(1966), p.186.



는데, 7~8일을 소모하였다. 그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기차에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사는 조선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었던 바였는데, 나중에 들으니 기차에 옮겨 싣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었다. 필시 이는 다시로 군의 재임 중에 벌어진 굉장한 사건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 금불은 지금 창경원(경복궁의 오기)의 북쪽 모퉁이에 있으며, 그 장대함과 용안의 풍만함은 원내에 이에 견줄 만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²¹

위의 기록에서 언급된 서산군 해미읍내 가야산 대불주상은 서산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에 봉안되었던 높이 259cm의 대형 철조여래좌상을 의미한다. 이 철조여래좌상은 1917년(대정 6)에 보원사에서 소달구지를 타고 천안역까지 이동했고, 다시 기차로 옮겨진 후 서울로 이송되어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전시되었다. 경복궁 내 견줄 만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이 주는 느낌은 대단했다고 전한다. 아마도 철조여래좌상의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과 철이라는 재료가 가지는 物性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형의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한 발원자와 후원세력, 그리고 그들이 이 불상을 조성한 배경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2m가 넘는 대형의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하는 일은 상당한 공력과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 朝鮮佛教社 編, 『朝鮮佛教』 45(京城: 朝鮮佛教社, 1928), p.48. 보원사지의 소재지인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는 본래 해미군 부산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보현동, 강당리, 갈동, 용비동, 이도면의 거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용비동과 보현동의 이름을 따서 용현리로 서산군 운산면에 편입되었다.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서울: 한글학회, 1974), p.54. 보원사지는 서산군 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한동안 해미라는 지명과 함께 사용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순우, 앞의 책(2002), pp.152-153 참조.

Ⅲ.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조성시기와 조성배경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아래에 보원사의 옛터가 남아있다. 오늘날에는 건물지와 일부 유물만이 잔존해 황량함을 지울 수 없지만, 과거 보원사는 화엄종 사찰로 유서 깊은 곳이었다. 904년(효공왕 8) 崔致遠(857~?)이 찬한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이하 법장화상전)에는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편 장소인 華嚴十刹로 중악 공산의 미리사, 남악 지리산 화엄사, 북악 부석사, 강주 가야산 해인사 등과 함께 웅주 가야협 보원사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²² 여기서 말하는 화엄십찰은 해인사가 창건된 802년(애장왕 3)부터 「법장화상전」이 완성된 904년 사이에 화엄종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성립된 것으로 평가된다.²³ 이를 통해 보원사가 9세기 신라 화엄의 중심 사찰로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원사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승려에게 具足戒를 수계하는 戒壇이 설치되었다.²⁴ 현재 전하는 기록으로 볼 때, 신라하대 승려 가운데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최초의 인물은 迦智山門의 普照國師 體澄(804~880)이다. 그의 행적이 기록된 「長興寶林寺普照禪師塔碑」에 따르면 체징은 827년(태화 정미년)에 가랑협산 보원사에 가서 구족계를 받았다.²⁵ 체징을 시작으로 이후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승려들의 예가 비문에서 확인된다. 888년(중화 6)에는 須彌山門을 개창한 眞澈大師 利嚴(870~936)이 가야갑사(보원사)의 도견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고,²⁶ 874년(함통 15)에는 眞空大師(855~937)가 가야산 수도원(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²⁷ 880년경에는 廣慈大師 允多(864~945)가 가야산의 새 절(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²⁸ 898년(건녕 5)에는 法鏡大師 玄暉(879~941)가 가야산사(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²⁹

22 東國大學校 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會 編,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韓國佛教全書』 3(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p.775. 「海東華嚴大學之所 有十山焉 中岳公山美理寺 南岳知異山華嚴寺 北岳浮石寺 康州迦耶山海印寺 普光寺 熊州迦耶峽普願寺 雞龍山岬寺 括地志所云雞藍山是 朔州華山寺 良州金井山梵語寺 毘瑟山玉泉寺 全州毋山國神寺 更有如漢州負兒山青潭寺也 此十餘所」 한편 「三國遺事」에서는 화엄십찰로 태백산 부석사, 원주 바마라사, 가야산 해인사, 비슬산 옥천사, 금정산 범어사, 남악 화엄사 등을 들었다. 「三國遺事」 卷4 義湘傳教 참조.

23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서울: 民族社, 1991), p.85.

24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 뒤쪽 건물지21(서회랑지)에서 계단 시설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 건물지21(서회랑지)은 고려 후반에서 조선 초반에 조성된 건물지라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瑞山 普願寺址』 II(부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p.64.

25 李智冠,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碑文」, 『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서울: 伽山文庫, 1993), p.97. “後以大和丁未歲 至加良峽山普願寺 受具戒.”

26 李智冠, 「海州 廣照寺 眞澈大師 寶月乘空塔碑文」, 『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서울: 伽山文庫, 1994), p.19. “年十二往迦耶岬寺 投德良法師 懇露所懷 求爲師事…中和六年 受具足戒於本寺道堅律師.”

27 李智冠, 「豊基 毗盧庵 眞空大師 普法塔碑文」, 앞의 책(1994), p.103. “所以問道 迦耶尋師 設實得禮善融和尚 請以爲師…咸通十五年 受具足戒於當山修道院”

28 李智冠, 「谷城 大安寺 廣慈大師碑文」, 앞의 책(1994), p.338. “於伽耶岬新藪受具.”

29 李智冠, 「忠州 淨土寺 法鏡大師 慈燈塔碑文」, 앞의 책(1994), p.213. “乾寧五年 受具於伽耶山寺.”

이처럼 종파와 상관없이 선종 승려들도 화엄종 사찰인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원사는 신라시대 대표적인 사찰이었다.³⁰ 고려 건국 후에도 보원사는 영통사, 승법사, 동화사와 함께 계단이 설치된 중심 사원으로서 그 역할을 이어나갔다.³¹ 고려 초까지 이어진 사세 확장의 중심에는 法印國師 坦文(900~975)의 역할이 컸다. 현재 보원사지 사역 북쪽에 「법안국사보승탑비」가 남아있어 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다(도 8). 탄문의 행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 8. 법안국사보승탑비, 978년, 높이 240cm, 서산 보원사지, ©김정원

표 2. 〈탄문의 행적〉

연대		세수	생애
900년	신라 효공왕 4		건녕 7년 8월 14일 출생 속성은 高氏, 廣州 고봉(경기도 고양) 출신 부친은 군수를 지냄
904년		5	출가 향성산(서울 북한산) 大德和尚 추천으로 옛터에서 수행 사람들이 聖沙彌라 부름
914년	신라 신덕왕 3	15	莊義寺(서울 종로구) 信嚴大德에게 「화엄경」 수학 장의사에서 구족계 받음 태조가 別和尚으로 보함
921년	고려 태조 4	22	승려 선발의 시험관으로 임명
926년	고려 태조 9	27	태조의 명으로 神明王后 劉氏의 순산을 위해 법력을 다해 기도함. 광종 출생 九龍山寺(개경)에서 「화엄경」 강의
927년	태조 10	28	別大德으로 제수
934년	태조 17	35	서백산 神朗 太德에게 「화엄경」 수학 華嚴大教 성행
942년	태조 25	43	鹽州·白州(황해도 지역)에서 「대반야경」을 강설해 해충의 피해를 막음
943년	혜종 즉위년	44~46	혜종의 초청으로 天成殿에서 강설 왕과 사제의 인연을 맺음 왕이 구룡산사에 시주금 등을 보냄
945년	정종 즉위년	46	구룡산사에서 법회 개최

30 韓基汶, 「新羅末 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教育論集』 12(1988), pp.51-52.

31 『高麗史』 卷6 世家 靖宗 2年 5月. “制凡有四子者 許一子出家 於靈通嵩法普願桐華等寺戒壇 試所業經律.”

연대		세수	생애
949년	광종 즉위년	50	광종의 초청을 받아 강설 고려를 빛내기 위해 석가삼존금상 조성(*造釋迦三尊金像)
953년	광종 4	54	부처님 사리 3과를 얻어 탑을 세움
955년	광종 6	56	여름에 병이 들었으나 건강을 되찾음 광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삼존금상 주조(*鑄金像之三尊)
968년	광종 19	69	궁궐 법회에 초빙, 內道場으로 영입 9월 歸法寺 창건, 광종이 귀법사에 주석하게 함 10월 王師로 임명
972년	광종 23	73	영험을 얻어 오백나한도를 安禪報國院에 모심 옛날 보원사에서 오백승을 만난 경험 회상
975년	광종 26	76	國師로 임명 가야산사(보원사)에서 교종과 선종 승려 1,000여 명이 영접 3월 29일 보원사에서 입멸(세수 76세, 승랍 61)
978년	경종 3		찬자 金廷彦, 서자 韓允, 각자 金承廉 법인국사탑비 건립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탄문은 광주 고봉 출신으로 속성은 고씨이다. 탄문은 914년(신덕왕 3)에 장의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성사미라 칭송받았다. 고려太祖(재위 918~943)는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별화상과 별대덕으로 제수했고, 승려 시험의 시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태조는 탄문에게 신명왕후 유씨의 순산을 위해 법력을 다해 기도하게 했고, 이후 왕비는 광종을 순산했다. 탄문은 태조에 이어 즉위한 惠宗(재위 943~945)과는 사제의 연을 맺었고, 定宗(재위 945~949)대에는 법회를 개최했고, 光宗(재위 949~975)대에는 왕사와 국사를 두루 역임하여 왕실의 안정을 도모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볼 때, 탄문은 태조부터 광종 때까지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탄문이 광종의 즉위년(949)에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³² 이는 「법인국사보승탑비」에 새겨진 ‘군자의 나라를 빛내기 위해 석가삼존금상 조성했다’는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³³ 그런데 비문을 보면 탄문이 보원사에 주석했던 시기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다. 비문에는 탄문이 머물렀던 장의사, 구룡산사, 귀법사 등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보원사의 경우 975년(광종 26) 탄문이 故山, 즉 가야산사(보원사)로 돌아갔다는 내용만 전한다. 다만 972년(광종 23) 탄문이 과거 보원사에 주처할 때 성주원에서 온 오백승의 입방을 요청받은 영험을 회상하는데,³⁴ 이를 통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탄문이 보원사에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 주3 참조.

33 李智冠,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p.78. “欽若法王之道 煥乎君子之邦 造釋迦三尊金像.”

34 李智冠,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文」, 앞의 책(1995), p.80. “大師乃言之 昔吾在普願寺 奉持三本華嚴經 每以中夜 經行像殿 不絕數年 忽一夜三寶前 有一僧問曰 僧來奚自 乃曰聖住院 住持五百僧 隨緣赴感 經過此地 遣僧起居.”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문이 보원사에 주석했던 시기는 968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968년(광종 19) 탄문은 광종의 명을 받아 급히 개경으로 올라와 다시 보원사로 내려가기 전까지 줄곧 귀법사에 주석했다. 926년(태조 9)부터는 개경의 구룡산사에 주석하면서 서백산과 천성전을 오가며 활동했고, 이 시기 혜종과 정종이 구룡산사에 시주금을 보내거나 법회를 개최했다. 949년(정종 4)에 탄문은 왕실의 초청을 받아 공덕을 선양하고 나라를 다스릴 묘법을 강설했다. 이를 통해 볼 때, 926년부터 949년경까지 탄문은 개경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955년에 이르면 탄문의 신변에 변화가 감지된다.

현덕 2년 여름에 대사는 법체가 정상을 어겨 불편하여 찡그린 얼굴로 질병을 보였다.³⁵

위의 비문을 보면 탄문이 955년(현덕 2) 여름에 큰 병을 얻었다고 한다. 968년(광종 19)에 탄문이 개경으로 초청되어 법회를 주관하고 왕사로 임명되기까지 개경에서 별다른 활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 탄문은 개경에서 물러나 보원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⁶ 태조대 이래 계속해서 중앙에서 활동했던 탄문이 955년 이후 13년간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보원사에 주석하게 된 데에는 이 시기 불교계의 중심인물로 떠오른 화엄종 승려 均如(923~973)와 관련이 있다.

균여에 대한 기록은 1075년(문종 29) 赫連挺(?~?)이 찬한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이하 균여전)」에서 전한다. 균여는 黃州 출신이고 속성은 邊氏이다. 균여는 광종의 부인인 大穆王后의 지원으로 불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목황후가 황주의 대호족세력인 皇甫氏 일가이고, 이들이 수미산문의 廣照寺를 비롯하여 황주 일대의 사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황보씨가 자신과 지역적 기반이 같은 균여를 지원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균여는 949년 대목황후의 병을 고쳤고,³⁸ 953년(광종 4) 중국에서 冊封使가 왔을 때 祈晴法會를 진행해 대덕으로 임명되는 등 왕실의 주목을 받았다. 958년에는 광종의 명으로 佛日寺에서 祈禳祭를 지낸 후 內道場에 초청되었다. 이듬해 963년(광종 14)에 귀법사의 초대 주지가 되었는데, 이는 당시 귀법사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균여를 화엄종을 대표하는 승려로 인정한 것이다.³⁹

35 李智冠,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文」, 앞의 책(1995), pp.78-79. “顯德二年夏 大師法體乖和 嘔容示疾.”

36 최연식, 「均如 華嚴思想研究: 敎判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p.35, p.55의 주73.

37 金杜珍, 「均如華嚴思想研究: 性相融會思想」, (서울: 韓國研究院, 1981), pp.13-15.

38 「균여전」에는 광종 왕비 皇甫氏의 玉門에 종기가 났을 때, 균여가 주문을 외워 치유한 내용이 전한다. 왕비의 병과 치료는 균여를 불교계에 등장시키기 위한 의도된 사건으로 판단된다. 특히 왕비의 은밀한 곳에 난 종기를 치료한다는 것은 非공식적인 일이고, 치유 능력의 평가는 왕비 개인에게 달렸다는 점에서, 왕비 황보씨가 균여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연식, 앞의 논문(1999), p.44의 주54 참조.

39 최연식, 앞의 논문(1999), pp.47-48. 광종은 귀법사에 빈민구제 재단인 濟危寶를 설치하고 無遮大會와 水陸會를 개설하였다. 이는 광종이 여러 법회를 통해 지지세력을 얻고자 한 것이다. 정병삼, 앞의 논문(2018), p.326. 귀법사의 창건

이상을 내용을 살펴볼 때, 탄문이 개경의 구룡산사에 머물다 갑자기 병을 얻은 것은 균여의 등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즉 중앙 교단에서 균여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교단 내 탄문의 활동 기반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⁴⁰ 955년 탄문은 건강을 회복한 후 다음과 같은 불사를 진행했다.

대사께서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성군이 나를 스승이라 일컬으므로, 나는 부처님의 가호로 임금께 보답하려 하노라.”고 하였다. 부처님을 존중한 공덕으로 옥황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삼존금불상을 주조하였다.⁴¹

표2와 위의 비문을 통해 탄문이 949년에 이어 955년에도 삼존금불상을 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949년 석가삼존금상을 조성했을 때는 ‘造釋迦三尊金像’인 반면, 955년 삼존금불상을 주조했을 때는 ‘鑄金像之三尊’으로 나온다. 여기서 ‘鑄’는 ‘쇠를 부어만들다’는 의미이므로, 955년에 만든 금상삼존불 중 주존불이 현존하는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949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탄문이 지방이 아닌 개경의 구룡산사에서 주석하던 시기이다.⁴² 비문에서 불상을 금상(금불상)으로 표현한 것은 철로 불상을 주조한 후 金箔으로 도금했기 때문이다.⁴³ 이와 관련한 사례로 경기도 포천 興龍寺 출토 철조여래좌상을 들 수 있다. 이 철조여래좌상은 왼쪽 어깨, 오른팔, 법의 등에서 금박이 확인되는데, 나말여초 철조여래좌상의 표면에 금박을 입힌 실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도 9).⁴⁴

탄문이 개경에서 내려온 후 금상삼존불을 주조한 배경에는 忠州 劉氏의 후원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탄문이 광종의 어머니인 신명왕후 유씨의 출산 때부터 충주 유씨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점에서, 광종의 외가이자 대호족세력인 충주 유씨의 후원에 힘입어 불상을 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광종은 충주 유씨와 각별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예로 954년(광종 5) 충주 崇善寺 창건을 들 수 있다. 불과 3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개경에 奉恩寺와 佛日寺를 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머니 신명왕후 유씨를 위해 충주 유씨의 근거지에 승

은 호족들의 반발에 밀려 중단했던 개혁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金龍善, 「光宗의 改革과 歸法寺」, 『高麗光宗研究』(서울: 一潮閣, 1981), pp.105-112.

40 최연식, 앞의 논문(1999), pp.47-51; 김혜완, 앞의 논문(2000), p.48; 정병삼, 앞의 논문(2018), pp.331-332.

41 李智冠,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文」, 앞의 책(1995), p.79. “大師告門人曰 聖君 致我稱師 報君以佛 奉爲祝玉皇之萬壽 鑄金像之三尊”

42 비문의 내용으로 볼 때, 949년의 불사는 개경의 구룡산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43 姜友邦, 앞의 논문(1988), pp.23-29.

44 강건우,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 『미술자료』 96(2019), p.217; 강건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연구 -입수 경위와 像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6(2020), pp.335-336.

선사를 창건한 것이다.⁴⁵ 승선사의 창건은 광종이 자신을 지지하는 충주 유씨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⁴⁶ 즉 광종의 즉위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충주 유씨의 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광종도 승선사 창건을 통해 외가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그리고 1년 뒤인 955년 탄문은 광종에 대한 충주 유씨의 변함없는 지지와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불상을 주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탄문이 일생 동안 추구해왔던 功德信仰의 대표적인 예이다.⁴⁸

충주 유씨는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탄문을 후원했을 것이다. 예부터 충주는 철 산지로서 유명한 지역이고, 이곳에서 충주 유씨는 철 생산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⁴⁹ 특히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는 문헌으로 전하던 多仁鐵所로 비정되며, 고려시대에 조업된 노계마을 유적, 본리 당저Ⅰ 유적, 본리 노계Ⅱ 유적, 본리 새터골Ⅲ 유적이 발굴조사되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철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⁰ 충주의 철은 무기나 농기구의 제작과 함께 불상의 조성에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주에 전하는 백운암 철조여래좌상(보물 제1527호)(도 10), 대원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98호)(도 11), 단호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512호)은 모두 이 지역의 유력 세력의 후원을 받아 철로 만들어진 불상이다. 따라서 충주 유씨는 광종을 위한 대형의 철조여래좌상을 주조하기 위해 충주의 철을 보원사에 후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9. 홍룡사 철조여래좌상, 높이 105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9976)



도 10.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높이 87cm, 충주 백운암(필자 촬영), 보물 제1527호



도 11. 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높이 98cm, 충주 대원사(필자 촬영), 보물 제98호

45 『高麗史』卷2 世家 光宗 5年. “五年 春 創崇善寺 追福先妣.”

46 정성권, 「高麗 光宗을 보는 또 다른 시각 -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한국인물사연구』 19(2013), p.232.

47 김혜완, 앞의 논문(2000), p.45.

48 탄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공덕신앙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다른 고승에 비하여 유난히 두드러진 감이 있다. 비문에는 탄문의 화엄종에 대한 이해와 학문적 능력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엄교학 연구와 저술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지 않는다. 최연식, 앞의 논문(1999), pp.57-58.

49 최규성, 「高麗初期 忠州劉門 勢力」, 『藝城文化』 15(1994), p.50.

50 조록주, 「충원지역 철 생산 유적에 대한 성격」, 『중원문화연구』 18·19(2012), pp.93-95.

충주 유씨의 후원을 받아 주조된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은 1912년 강원도 원주 읍옥평에서 수습된 철조여래좌상과 양식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도 12).⁵¹ 원주 철조여래좌상의 크고 둥근 육계와 나발, 옆으로 길게 늘어진 눈, 짧지만 예리한 코, 짝 다문 입술 등의 이목구비 표현이 보원사 철조여래좌상과 거의 동일하다(도 13). 또한 목 아래 三道 밑과 허리 아랫부분, 팔목 윗부분에서 주물의 外型을 이은 점,⁵² 대의가 얇고 옷주름이 도식적으로 표현된 점, 왼팔이 접히는 부분에 리본 형태의 주름이 나타나는 점 등이 보원사 철조여래좌상과 일치한다.⁵³ 이와 같은 양식적 친연성으로 인해 강원도 원주의 철조여래좌상은 보원사 철조여래좌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조된 것으로 이해된다.⁵⁴



도 12. 강원 원주 읍옥평 철조석가여래좌상 유리건판 사진
(건판034506)



도 13. 철조여래좌상, 높이 94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1972)

51 『朝鮮古跡調査略報告(1914년 발간)』에는 1912년 강원도 원주 읍옥평에서 수습된 네 구의 철조여래좌상 중에서 세 구가 석가여래좌상으로 나오는데, 읍옥평 인근에 철조여래좌상을 봉안했을 만한 사찰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견 당시 네 구의 철조여래좌상이 2열로 정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 1867~1935) 일행의 고적조사를 앞두고 군청이나 현병대에서 폐사지에 있던 철조여래좌상을 원주읍 인근으로 모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은영, 「일제강점기 철불의 발견과 이산」, 『강원지역 철불의 과학적 조사·분석 보고서』 I(춘천: 국립춘천박물관, 2020), pp.127~128 참조.

52 최성은, 「중부지역에 확산된 불교조각: 석불과 철불」,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서울: 일조각, 2013), p.107.

53 하정민, 「충주지역 고려 초기 철불과 그 의의」, 『인문과학연구논총』 40(2019), p.323.

54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강원도 원주 지역 철조여래좌상의 제작연대를 10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林玲愛,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美術史學研究』 228·229(2001), p.40; 권보경, 앞의 논문(2020), pp.113~114.

10세기경 보원사와 같이 원주에서도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충주 유씨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원주와 멀지 않은 寧越의 興寧寺址 澄曉大師塔碑에 충주 유씨가 후원자로 참여한 내용이 남아있다. 이 탑비의 앞면에는 징효대사 折中(826~900)의 행적이 기록되었고, 뒷면에 고려 왕실의 王堯君(정종), 王昭君(광종)과 함께 그들의 외척인 劉兢達, 劉權說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⁵⁵ 이를 통해 광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영월의 흥녕사와 인연을 맺었고, 이 지역에도 광종과 그의 외가인 충주 유씨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⁶

또한 충주 유씨는 같은 시기에 충주 淨土寺 法鏡大師碑 건립에도 주요 후원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충주 유씨가 충주와 제천, 영월 등을 포괄하는 남한강 유역의 가장 강력한 세력임을 의미한다.⁵⁷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원사 철조여래좌상과 원주 철조여래좌상은 모두 충주 유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지역의 불상이 양식적으로 유사한 것은 조각 장인들의 이동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⁵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菩提寺大鏡大師塔碑」(939년)에 등장하는 ‘철장 증원부인 향연’⁵⁹, 즉 충주 출신의 철장 향연이 양평에서 활동한 것처럼 솜씨 좋은 장인들이 지역을 옮겨다니며 도제식으로 조각양식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⁶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주 고봉의 유력가문 출신인 탄문은 태조의 보살핌 속에 화엄종의 중심인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혜종과 정종대에도 왕실의 불교행사를 주관하여 왕실로부터 특별한 우대를 받았다. 이후 광종의 왕비 황보씨의 후원을 받은 균여의 등장으로 불교계 내 운신의 폭이 좁아져 개경에서 떨어진 보원사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955년(광종 6) 충주 유씨의 후원을 받아 광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대형의 철조여래좌상을 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균여가 逆謀에 몰려 곤란을 겪게 될 때쯤인 968년(광종 19)⁶¹, 탄문은 다시 개경으로 가서 균여에 이어 귀법사의 주지가 되었고, 연이어 왕사와 국사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그의 불사는 광종에게 상당한 호감을 주었을 것이다.

55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 寶印塔碑文」, 李智冠은 圖를 說로 보았다. 비문의 내용은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1(서울: 伽山文庫, 1994), p.284. “王堯君 王昭君...(중략)...兢達蘇判 王規佐承 權圖佐承.”

56 최성은, 앞의 책(1996), p.88. 김혜완, 앞의 논문(2000), pp.28-30.

57 최연식, 「師子山 禪門의 성립과정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21(2008), pp.248-249.

58 서산 보원사 철불과 원주 철불을 같은 또는 동일 유파의 조각가 집단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崔聖銀,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 系譜」, 『講座美術史』 8(1996), p.34. 한 장인이 원주와 서산 등지에서 철불을 조성했다는 견해는 姜友邦, 앞의 논문(1988),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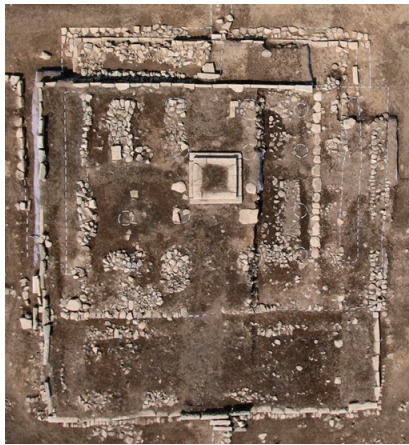
59 비문의 내용은 李智冠, 앞의 책(1994), p.83. “鐵匠 仲源府人 香淵.” 「砥平 菩提寺 大鏡大師 玄機塔碑文」

60 광종의 외가인 충주호족 유궁달과 영월지역 사자산문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원주 출토 철불상들과 광종을 위해 조성된 보원사 철불에서 같은 양식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다. 崔聖銀, 앞의 논문(1996),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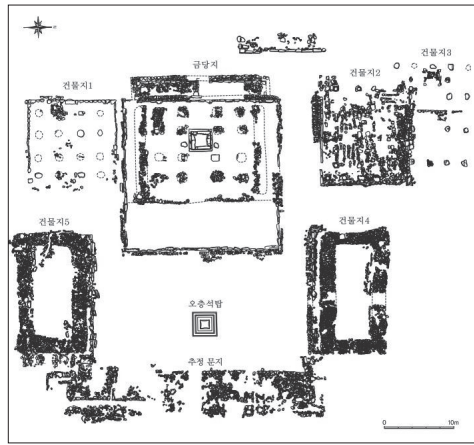
61 광종은 자신의 측근인 正秀를 이용하여 균여를 제거하려 했지만, 황보씨와 같은 대호족들의 압력으로 오히려 정수를 처형했다는 견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金杜珍,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韓國學報』 5(1979), pp.73-75 참조.

IV.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原 봉안처

955년 탄문이 발원한 철조여래좌상은 조선충독부박물관으로 이운되기 전까지 보원사 경내의 소옥에 있었다. 이 소옥은 현재의 금당지에 철조여래좌상을 안치하게 위해 마련한 임시 건물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조성 당시 원 봉안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불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승려였던 탄문이 광종을 위해 발원한 대형 불사이니만큼 사찰의 중심인 금당지에 봉안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보원사지 발굴조사 결과 현재의 금당지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물의 터로 드러났다(도 14). 발굴조사단은 금당지에서 조선시대 궁궐 건축에 등장하는 月臺가 건물의 정면과 배면에 설치되었고⁶², 금당지 하부에 시기가 다른 유구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금당지는 건물지2, 건물지4, 건물지5 등과 함께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물지로 결론내렸다(도 15).⁶³ 또한 금당지에서 10세기에 속하는 청자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타 건물지와 비교할 때 고려시대 막새와 청자의 출토빈도가 매우 낮고, 조선시대 자기류가 대량 발견되었다는 점도 금당지 편년의 근거가 되었다.⁶⁴



도 14. 보원사지 금당지 전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도 15. 보원사지 중심영역 건물지 배치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62 보원사지 금당지는 일반적인 사찰건물과 다르게 건물의 정면(동쪽)과 배면(서쪽)에 각각 월대를 조성하였다. 정면 월대는 남북 길이 22.5m, 동서 길이 15.3m, 배면 월대는 남북 18.9m, 동서 2.8m의 규모이다. 이 월대는 후대에 개축 혹은 증축된 것이 아니며 금당지 지반을 조성할 때 같이 축조된 것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瑞山 普願寺址』(부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pp.37-38.

6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0), pp.474-475.

6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0), pp.463-466.

발굴조사에 따르면 현재 보원사의 중심 사역 내 건물지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이다.⁶⁵ 조선시대 보원사는 현재 오층석탑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전각을 조성하면서 사세를 확장했다.⁶⁶ 보원사의 연이은 중창불사는 불서 간행으로도 이어졌다. 충청남도 서산 개심사에는 총 18종 421판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심사 책판은 2종, 보원사 책판은 14종(추정 2종), 가야사 책판은 1종, 간행처 미상 책판은 1종으로 대부분이 보원사에서 판각한 것이다.⁶⁷ 이를 통해 보원사가 16세기 쌍계사와 더불어 충청도에서 가장 많은 불서를 간행한 사찰임을 알 수 있다.⁶⁸ 보원사의 불서 간행은 임진왜란 전인 16세기 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五大眞言隱求經』(1604년)을 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의 보원사에 대한 기록은 1619년(광해군 11)에 韓慶春(?~?), 韓汝賢(1571~?) 부자가 편찬한 『湖山錄』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강당사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보원사로 이는 옛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강당사로 새로 지은 이름이다.⁶⁹

위의 『호산록』에 등장하는 보원사의 또 다른 사명인 강당사는 1581년에 간행한 불서에서 먼저 확인된다. 1년 이전인 1580년(선조 13)에 간행한 『道家論辨牟子理惑論』에는 간행처가 가야산 보원사로 나오는 반면, 1581년(선조 14)에 간행한 『天地冥陽水陸雜文』에는 간행처가 가야산 강당사로 나온다. 이를 통해 1581년을 기점으로 보원사의 사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보원사는 두 가지 사명을 혼용하여 사세를 이어가다가 18세기 무렵에 완전히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8~19세기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757~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은 『輿地圖書』에는 강당사가 古蹟으로 기록되었고, 18~19세기에 편찬한 『忠淸道邑誌』와 1871년에 편찬한 『湖西邑誌』에는 古강당사로 표기되었다. 또한 1872년에 제작한 「瑞山郡山川圖」의 가야산(상왕산) 강당곡과 보현동 일대에 문수사, 개심사만 그려졌다는 점에서 이 당시 보원사가 완전히 폐사했음을 알 수 있다(도 16).

65 지금의 사역을 조선 明宗(재위 1546~1567)대 文定王后 尹氏(1501~1565)의 후원에 힘입은 결과로 추정하기도 한다. 金東昱, 「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pp.19-26.

66 이 시기 오층석탑도 지금의 자리로 이운해왔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0), p.474. 아직 별도의 유구나 塔址는 확인하지 못했고, 석탑도 해체한 후 그 아래를 발굴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동욱,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양식 특징과 건립 시기」, 『미술사학연구』 307(2020), p.53.

67 충청남도에서 개심사는 공주 갑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 개심사 소장 책판 현황에 대해서는 任潤修,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책판 제작 활동에 관한 연구-開心寺·普願寺·伽倻寺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6(2018), pp.191-194 참조.

68 박광현, 「瑞山 普願寺의 刊行本과 匠人 연구」, 『서지학연구』 80(2019), p.194.

69 韓汝賢, 『湖山錄』(서산: 서산문화원, 1992), p.48. “講堂寺有二名 一曰普願寺 此則舊 名一曰講堂寺.”



도 16. <서산군 산천도> 부분,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41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원사는 조선시대에 중창불사를 통해 금당을 건립하였다. 따라서 955년 탄문이 발원한 철조여래좌상은 조성 당시 봉안되었던 곳에서 중심 사역 내 금당의 건립에 맞춰이운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호산록』(1619년)에는 금당, 부도전, 나한전 등이 나오는데, 특히 금당의 묘사가 주목된다.

법당은 2층 높은 전각으로 구름 위로 솟아있다…부도전 뜰에는 옛날 비석이 있다. 송 태조 때 세웠고, 높이는 3장이고, 글씨는 이끼가 심해 읽을 수가 없다. 나한전 짧은 골짜기 가운데에 푸른 전나무가 있는데, 사람이 심은 것인지 알 수 없다…절은 오래되었고, 승려는 적다.⁷⁰

위의 ‘법당은 2층 높은 전각’이 바로 조선시대에 건립한 금당으로 보인다. 이 금당은 2층 구조인 점이 특이한데, 이는 아마 259cm에 이르는 대형의 철조여래좌상을 봉안하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 시기 보원사의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절은 오래되었고, 승려는 적다”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인 李喆煥(1722~1779)이 충청도 가야사 일대를 여행하고 기록한 『象山三昧』(1753~1755년)에서도 보원사와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묘사가 남아있어 참조가 된다.

70 韓汝賢, 앞의 책(1992), pp.48-49. “法堂則二層高閣 上出雲霄...(중략)...浮屠殿庭畔有古碑 宋太祖朝所立 其高三丈 其字若蝕不可讀 羅漢殿短峽中 有蒼檜一株 何人所植...(중략)...寺古僧殘.”

보원사의 승려가 말하길, “보원사에는 옛날부터 공양드려온 철로 주조한 약사불과 보현보살의 법상이 동시에 만들어졌고, 역대로 이어져 오면서 바탕에 칠을 하지 않았는데, 근세에 망령되고 용렬한 비구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일꾼을 모집하여 금칠하였다. 이 이후로 총림의 운수가 날마다 쇠퇴하고 침체하여 드날리지 못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중략)... 또 들으니, 불전이 옛날에는 세 겹의 처마로 되었다고 하니 그 크고 화려함을 상상해볼 수 있다. 지금은 겨우 처마 하나만 남았고, 먼지만 뒤집어 쓴 채, 허물어져서 짧은 기둥과 서까래·대들보 등이 늘어져, 완전히 황량하게 되었다. 부처에게 만약에 신령함이 있다면 어찌 그 몸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단 말인가. 불상 위 금장식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烏珠를 누군가 파가 버렸다.⁷¹

보원사 승려는 철조여래좌상을 약사불로 보았는데, 이는 조선시대 석불은 미륵불로 부르고, 철불은 약사불로 부르는 세인들의 통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⁷² 즉 현재의 모습처럼 수인이 없는 상태에서 철조여래좌상의 모습을 보고 약사불로 명명한 것이다.⁷³ 『상산삼매』에는 보원사 불전이 세 겹의 처마로 되어있을 만큼 상당히 화려했다고 전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많은 전각들이 경내에 건립되었고, 특히 화려하게 장식한 중앙 전각에 철조여래좌상이 봉안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금당지의 규모만을 비교해본다면, 발굴조사 결과 보원사 금당지는 월대를 제외하고 남북 및 동서의 길이가 약 22.5m로 이는 신라하대 성주사 금당지(정면 20m, 측면 14.4m)와 실상사의 금당지(정면 26.13m, 측면 12.52m) 규모와 비슷하다.⁷⁴

그렇다면 조성 당시 철조여래좌상의 원 봉안처가 주목된다. 원 봉안처에 대한 문제는 ‘불상의 조성’과 ‘봉안 공간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발굴조사에 따르면, 현재 오층석탑이 있는 중심 영역에서 고려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은 건물지1과 건물지3이다. 이 중에서 동서 약 11m, 남북 약 15m의 건물지3이 주목된다(도 17). 건물지3은 사역 내 다른 건물지와 비교할 때 고려시대 막새로 알려진 귀목문과 엽맥상연화문 수막새 등의 출토 빈도가 높았다.⁷⁵ 또한 고려시대 자기류의 출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⁷⁶ 건물지3은 경내 다른 건물지와 다르게 유일하게 남동쪽 방향으로 2.8°가 틀어진

71 이철환 著, 이대형 譯, 『象山三昧』(서산: 대한불교조계종 내포가야산보원사, 2017), pp.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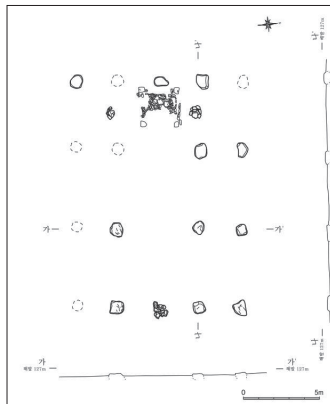
72 金映遂·黃壽永, 「知異山 實相寺事蹟」上, 『考古美術』 108(1970), p.21. 世俗에서 石造像은 通稱 彌勒이라고하고 鑄造像은 通名하여 藥師라고 하기에 本佛像이 廣野田地中에 在할 時에 世人이 藥師라 稱하여서 고로 重刻當時에 忘本從俗하여 名함이로다.

73 비록 18세기 중반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이철환이 보원사를 방문했을 당시 본존불은 후대의 어느 순간부터 원손에 약기를 든 약사불로, 보살상은 도상적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 막연히 보현보살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1955년 삼존 금상의 조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만약 본존불상이 조성 당시부터 약사불이었다면 협시보살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논고를 준비하고자 한다.

74 철조여래좌상이 봉안된 금당의 규모에 대해서는 강건우,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재고」, 『한국고대사탐구』 27(2017), p.119의 표 5 참조.

7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0), p.463의 표 2 참조.

7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0), p.466의 표 6 참조.



도 17. 건물지3 평면도 및 단면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도 18. 건물지3 내부 불단 유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사실은 건물지3에서 佛壇으로 보이는 방형 유구가 확인된 점이다(도 18). 이 불단은 남북 2.3~2.5m, 동서 2.5~2.6m 규모의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밝혀졌다.⁷⁷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크기(무릎너비가 214cm, 두께가 144cm)와 현재 확인된 고려시대 건물지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탄문이 955년에 발원한 철조여래좌상은 조성 당시 건물지3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즉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은 고려시대 전각인 건물지3에 봉안되었다가 조선시대 중창불사를 통해 금당지가 새롭게 건립되면서 이운된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입수 과정, 조성시기와 배경, 원 봉안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16(대정 5)에 보원사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고, 이듬해에 소옥에 안치되었던 철조여래좌상 1구를 경복궁으로 이운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인 서산 철불 조사보고와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 터 석표 유리건판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 첨부된 견취도와 평면도에 철조여래좌상의 당시 모습과 크기 등이 나와 있어, 일제강점기 2m가 넘는 대형 철조여래좌상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조여래좌상은 탄문이 955년에 조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탄문은 광주 고봉의 유력가문 출신으로 태조의 보살핌 속에 화엄종의 중심인물로 성장했고, 연이어 혜종과 정종대에도 왕실의 불교행사

7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0), p.57.

를 주관했다. 이후 탄문은 황보씨의 후원을 받은 균여의 등장으로 개경에서 떨어진 보원사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충주 유씨의 후원을 받아 지지세력의 결속을 다지고 한편으로는 광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대형의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탄문의 비문에 나오는 ‘주금상지삼존’도 보원사에서 철조여래좌상이 주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철조여래좌상의 원 봉안처는 보원사지 내 건물지3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현재의 금당지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물지로 드러났기 때문에, 철조여래좌상은 조성 당시 다른 장소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건물지3은 다른 건물지에 비해 고려시대 기와와 자기의 출토 빈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정방형에 가까운 불단 유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철조여래좌상은 조성 당시 고려시대 전각인 건물지3에 봉안되었다가 조선시대 중창불사를 통해 지금의 금당지로 이운되었을 것이다.

본고는 나말여초 중원지역의 대표 불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의 제작기법과 그 특징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나말여초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며 유사한 양식의 불상을 제작한 장인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高麗史』

『三國遺事』

金廷彦,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文』

【도록·보고서·단행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瑞山 普願寺址』Ⅰ, 부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_____, 『瑞山 普願寺址』Ⅱ, 부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국립춘천박물관, 『강원지역 철불의 과학적 조사·분석 보고서』Ⅰ, 춘천: 국립춘천박물관, 2020.

金杜珍, 『均如華嚴思想研究: 性相融會思想』, 서울: 韓國研究院, 1981.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 서울: 民族社, 1991.

東國大學校 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3,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李基白 編, 『高麗光宗研究』, 서울: 一潮閣, 1981.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나』, 서울: 하늘재, 2002.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서울: 伽山文庫, 1993.

_____, 『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 서울: 伽山文庫, 1994.

_____,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2,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이철환 著, 이대형 譯, 『象山三昧』, 서산: 대한불교조계종 내포가야산보원사, 2017.

朝鮮總督府 編,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京城: 朝鮮總督府, 1920.

_____, 『博物館陳列品圖鑒』2, 京城: 朝鮮總督府, 1920.

최성은, 『철불』, 서울: 대원사, 1996.

_____,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서울: 일조각, 201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 대전: 지그래픽, 201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 서울: 한글학회, 1974.

韓汝賢, 『湖山錄』, 서산: 서산문화원, 1992.

【논문·연속간행물】

강건우,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재고」, 『한국고대사탐구』27, 2017.

_____,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 『미술자료』96, 2019.

_____,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연구 -입수 경위와 像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36, 2020.

姜友邦,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미술자료』41, 1988.

권보경, 「고려 전기 원주지역 철불의 조성」, 『美術史學』39, 2020.

金東昱, 『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_____,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양식 특징과 건립 시기」, 『미술사학연구』 307, 2020.
- 金杜珍,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韓國學報』 5, 1979.
- 金映遂 · 黃壽永, 「知異山 實相寺事蹟」上, 『考古美術』 108, 1970.
- 김혜완, 「普願寺鐵佛의 조상」, 『史林』 14, 2000.
- 李殷昌, 「瑞山 普願寺址의 調査」, 『美術史學研究』 69, 1966.
- 민활, 「고려전기 남한강 문화권의 형성과 불상조성」, 『미술사학연구』 285, 2015.
- 박광현, 「瑞山 普願寺의 刊行本과 匠人 연구」, 『서지학연구』 80, 2019.
- 이인영, 「고려시대 철불상의 고찰」, 『미술사학보』 2, 1989.
- 이현일 · 이명희,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 『미술자료』 85, 2014.
- 林玲愛,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美術史學研究』 228 · 229, 2001.
- 任潤修,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책판 제작 활동에 관한 연구—開心寺 · 普願寺 · 伽倻寺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6, 2018.
- 장상훈, 「해방공간 국립박물관의 소장품과 그 관리」, 『박물관신문』 563, 국립중앙박물관, 2018.
- 정병삼, 「고려초 탄문의 불교계 활동과 보원사」, 『史學研究』 132, 2018.
- 정성권, 「高麗 光宗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한국인물사연구』 19, 2013.
- 조록주, 「증원지역 철 생산 유적에 대한 성격」, 『증원문화연구』 18 · 19, 2012.
- 朝鮮佛教社 編, 『朝鮮佛教』 45, 京城: 朝鮮佛教社, 1928.
- 朝鮮總督府 編, 『朝鮮彙報』, 京城: 朝鮮總督府, 1919.
- _____, 『朝鮮彙報』, 京城: 朝鮮總督府, 1920.
- 최규성, 「高麗初期 忠州劉門 勢力」, 『藝城文化』 15, 1994.
- 崔聖銀,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 系譜」, 『講座美術史』 8, 1996.
- 최연식, 「均如 華嚴思想研究: 敎判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師子山 禪門의 성립과정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21, 2008.
- 崔仁善, 「韓國 鐵佛 研究」,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沈熙京, 「瑞山 普願寺址 佛教彫刻의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하정민, 「충주지역 고려 초기 철불과 그 의의」, 『인문과학연구논총』 40, 2019.
- 韓基汶, 「新羅末 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敎育論集』 12, 1988.
- 黃壽永,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美術史學研究』 154 · 155, 1982.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https://www.museum.go.kr/dryplate/main.do>)

A Study on the Iron Seated Buddha at Bowonsa Temple in Seosan

Kang Kunwoo*

Bowonsa Temple (普願寺) is located to the north of Gayasan Mountain in Unsan-myeon, Seosan-si,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ultural properties it enshrines were produced during the late Unified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s, and include an Iron Seated Buddh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useum planned a survey on historical remain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era, and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at the Bowonsa Temple site in 1916 (Taishō 5). During this survey, the sculpture of the Iron Seated Buddha (knee: width 212 cm x thickness 167 cm) was found enshrined in a hut. The sculpture was moved to Gyeongbokgung Palace in the following year.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colossal Iron Seated Buddha was being housed at the Bowonsa Temple site at the start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Iron Seated Buddha is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in 955 by State Preceptor Beopin Tanmun (法印國師 坦文, 900–975). Tanmun was born into an influential family that produced many high officials. He became a leading figure in the Hwaecom (Flower Garland) school of Buddhism under the patronage of King Taejo. He also led Buddhist events at the Goryeo royal court during the reigns of King Hyejong (惠宗, r. 943–945) and King Jeongjong (定宗, r. 945–949). With the emergence of Gyunyeo (均如, 923–973), who was sponsored by Queen Daemok (大穆王后, dates unknown) of the Hwangbo clan (皇甫氏), Tanmun was transferred to Bowonsa Temple far from Kaesong. However, even while there Tanmun strengthened his ties with his supporters under the patronage of the Chungju Yu clan. He appears to have produced this colossal sculpture of Iron Seated Buddha as a prayer for longevity and a happy life for King Gwangjong (光宗, r. 949–975).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of State Preceptor Beopin at Bowonsa Temple Site that reads “[I] created a Buddha triad in gold” also suggests the Iron Seated Buddha was produced at Bowonsa Temple.

This Iron Seated Buddha is thought to have been enshrined originally in a hall at Building Site No. 3 within the Bowonsa Temple precinct. Since excavations at the temple site have revealed that the temple’s main hall was erected in the Joseon period, the Iron Seated Buddha might have been enshrined in a different hall at the time of its creation. It is likely that the sculpture was placed in a hall at Building Site No. 3 since Goryeo-era roof tiles and porcelain have been frequently excavated there and the remains of a square Buddhist altar have survived at the site. At the time of its creation, the Iron Seated Buddha was likely enshrined in a Goryeo-era hall at Building Site No. 3 but was transferred to the main hall during a rebuilding project undertaken at Bowonsa Temple in the Joseon period.

Keywords: Bowonsa Temple, Iron Seated Buddha, official document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anmun, excavation investigation into the Bowonsa Temple site

* Cheongju National Museum Curator